

여름의 눈

w. TEAM.대뇌변연계



■들어가기 전에

본 시나리오의 TRPG CLUB에서 번역/출간한 인세인을 바탕으로 하는 팬 시나리오입니다.

본 시나리오의 로그 공개/ 유튜브 등의 사용은 모두 자유로우나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후세터 등을 이용해 스포일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을 위해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자유롭게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수정한 시나리오를 재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는 반드시 룰북을 소지한 채 마스터링 해주시길 바랍니다.

■트레일러

그거 아세요? 에어컨은 춥습니다
왜 춥냐면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오면 제 피부가 차가워집니다
저의 두꺼운 장막이 완전히 차가워지면 그 안의 것들이 차가워질까요
심장도 차가워질까요

inSANE 「여름의 눈」

에어컨으로 동사는 힘들것 같습니다

■개요

타입 : 특수형

플레이어 인수 : 1인

리미트 : 4사이클

무대 : 사실은 무서운 현대 일본(이지만 국적 관계 없습니다)

광기카드 : 5장

썸 표 : 오리지널 썸 표

※ 트리거 소재 :

※1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부적을 자신에게 써도 좋습니다.

■PC 공개 사명

PC1

당신은 7년째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 일명 히키코모리입니다.

폭폭 찌는 한여름 낮, 당신은 오늘도 에어컨을 켜고는 바로 컴퓨터 본체의 전원을 누릅니다.

당신의 【사명】은 오늘도 이 방에서 나가지 않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밀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후는 GM만 열람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나리오 배경

7년전에 PC가 소중히 여기던 (지인/친구/연인/가족이었던)NPC가 죽습니다. 그리고 PC는 NPC가 죽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인과 같이 방에 틀어박혀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NPC의 죽음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던 PC는 어느때와 같이 에어컨을 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에어컨이 너무나도 춥습니다.

자신의 착각이겠거니, PC는 평소와 같이 컴퓨터 전원을 켵니다. 그런데 컴퓨터 바탕화면에 자신은 모르는 동영상이 가운데 떡하니 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면, NPC와의 추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NPC의 목소리와 얼굴은 담기지 않은 채로요.

※NPC가 죽은 이유는 자유롭게 설정해주세요.

■진상

현재 PC의 방에는 PC의 슬픔과 우울에 이끌린 괴이가 에어컨에 눌러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틀어진 방에 놓인 PC. 이대로 우울에 빠져있다면 에어컨의 바람에 동사하게 됩니다.

그런 PC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NPC는, PC가 원래의 생활을 되찾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PC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영상을 보냅니다. 자신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영상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현실에 완전히 개입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영상에는 소리가 없으며 NPC의 얼굴은 노이즈가 껴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NPC의 도움입니다. 앞으로는 PC가 상실을 극복해나가는 이야기예요.

괴이는 PC의 슬픔과 우울을 먹고살기 때문에 PC가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면 떠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프라이즈는 NPC가 보낸 것입니다.

■사용 광기

인세인 1권에서 <공포증>, <패닉>, <확산하는 공포>, <망향>

인세인 2권에서 <왜 나만?>

각각 1장씩, 총 5장을 준비해주세요.

■도입페이지

당신은 오늘도 변함없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28분.
밖에서는 초등학생의 체육 시간인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이 무더운 한낮, 에어컨을 켜고 물을 한 잔 들이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컴퓨터의 전원을 누릅니다.
오늘따라 자신에게 내려찍어지는 에어컨이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착각이겠거니, 당신은 곧바로 컴퓨터에 눈을 돌립니다.

평소와 같으면 바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의 가십거리를 찾으러 돌아다녔을 터인데, 바탕화면에 이상한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동영상의 이름은 20XX년 X월 X일. 내가 언제 이런 동영상을 다운받았지? 바이러스라도 걸린걸까? 눌러보기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자신의 내면에서 이 동영상을 봐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핸드아웃 [동영상], [에어컨]을 공개합니다.

■메인페이지

마스터 썬 【잊혀진 당신】

진입조건 : 동영상의 비밀을 공개하고 난 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동영상을 눌러봅니다.
동영상은 잠시 노이즈가 일더니 화면이 켜집니다.
화면은 어려 보이는 아이들 두 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얼굴은 검정펜으로 낙서라도 한 듯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자신입니다.

어째서? 이런 동영상을 찍은 기억이 있던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멈출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화면을 보다 보면, 동영상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리는 분명 키워났을 텐데 말이죠.
아무리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봐도, 동영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도 들리지 않는 소리에 포기하고 당신은 다시 영상에
집중합니다.

(영상 내용은 PC와 NPC의 관계에 맞게 지어내주세요. 영상의 계절은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어도 좋고, 특별한 날이어도 좋습니다. NPC와의 즐거웠던
시절을 회상할 수만 있다면요)

언제 찍힌 지도 모르는 당신의 예전 영상을 보던 당신은 문득, 7년 전에 죽은 NPC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은 자신이 NPC와 함께 있던 날들의 영상입니다.

어째서 잊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즐거웠던 나날을.

NPC가 죽은 이후로, 당신은 NPC와 함께 찍은 앨범조차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동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추억들을 회상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제 NPC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소리》로 공포판정.

핸드아웃 [앨범]을 공개합니다.

마스터썸 【이질감】

진입조건 : 앨범의 비밀을 공개하고 난 후

당신은 영상의 NPC의 얼굴이 상상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오랜만에
책장 한구석에 있던 앨범을 꺼내 봅니다. 그 안에는 NPC의 생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NPC를 찍은 사진, NPC가 찍어준 자신의 사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찍어준 NPC와 PC가 함께 있는 사진.

어떤 사진을 봐도 웃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는 듯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일까요. NPC의 사진을 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이것이 7년 전에 죽은 NPC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NPC의 얼굴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시간이 지난 건지, 아니면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NPC의 목소리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자신의 7년간의 세월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할 정도로 크나큰 충격이었을 텐데 이제서는 NPC의 모습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구멍이 생긴 듯한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혼돈》으로 공포판정.

■클라이맥스 페이즈

클라이맥스 페이즈 진입 전, PC의 비밀을 추가해주세요. 글로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새 시간은 저녁.
자신의 귀에 시끄럽게 돌던 소리들은 어느새 고요해져 에어컨의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컴퓨터의 불빛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에어컨의 소리가 커지더니 방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갑작스럽게 세지는 한기에 주변을 둘러보면, 아까부터 소리가 이상하던 에어컨은 역시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덜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노이즈가 낀 울음소리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 속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말이 들립니다.

“가지 마”라고 말이죠.

바로 눈앞에 있는 에어컨에서 말입니다.

이대로는 겨울에 알몸으로 밖에 나간것 마냥 동사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방안이 극도로 추워집니다.

전투로 진입합니다.

메인페이즈 핸드아웃의 비밀을 다 못봤을 시에는 에어컨을 부습니다.
비밀을 다 봤을 시에는 의식 「당신을 떠올린다」를 공개해주세요.

※전투에서 질 것 같으면 GM이 부적이나 무기를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3개 초과는 안됩니다.

■엔딩

END1. 여름의 눈

조건 : 타류 혹은 에어컨과의 전투 패배.

에어컨의 한기가 점점 강해지고 방의 마치 냉동고와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가지 마”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귀에서도 “가지 마”라는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몸도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NPC와 자신의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할 수 없는 NPC에게 죄악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심장 가득히 물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 그것을 빼내기 위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울고, 울고, 울부짖어서 심장의 물을 빼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몸이, 내장이, 마음이 얼어붙는 것이 느껴집니다.

며칠이 지나 세간은 떠들썩합니다.

뉴스에서 고독사한 (PC의 나이대)의 시체를 보도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름인데 시체가 동사한 것입니다. 경찰은 에어컨에서 비정상적인 한기가 나와 동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뉴스입니다. 에어컨으로 동사하는 건 힘든데 말이에요.

END2. 붉은 여름

조건 : 모든 메인페이즈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전투 승리.

당신은 에어컨을 부수고 난 후, 곧장 문을 열어 옥상으로 향합니다.

다행히도 옥상문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누군가가 발판으로 쓸만한 것도 놓고 갔네요.

당신은 7년간 자신의 세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계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세계의 한 자리를 구축하고 있던 NPC에 관한 것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죄악감과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그 동영상은 누가 자신의 컴퓨터에 넣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자신에 대한 혐오.

당신은 발판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확실히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높이입니다.

자신의 의지인지 실수인지, PC는 발을 헛디뎠다 허공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주마등을 봅니다.

NPC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자신과 함께 웃던 NPC의 웃음소리도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언제의 추억이였는지도.

찰나,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이제 막 NPC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추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추락하던 당신에게

“퍽”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의 머리와 아스팔트의 지면이 부딪히면서 난 소리라고 붙어지는 시야에서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엔, 캄캄한 어둠에 휩싸인 것입니다.

END 3. 여름의 봄

조건 : 모든 메인페이지의 비밀을 보고 전투 승리.

갑자기 에어컨이 잠잠해진 틈을 타, 당신은 성급히 문밖으로 나갑니다.

숨이 차도록 달려 공원으로 다다랐습니다.

PC는 문득, 위를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밝은 가로등 위로 수많은 별이 잘 보입니다.

하늘을 쳐다본 것도 몇 년 만인지.

오랜만에 나온 당신을 축하해 주는 듯, 하늘도 맑게 개어 달이 잘 보입니다.

PC는 PC의 세계를 허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의 숨은 가뻡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몸에선 열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 세상에 당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린 탓인지, 지끈거리던 머리도 어느샌가 상쾌해져 있습니다.

한참을 별을 세며 바깥을 만끽한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방은 아까처럼 춥지 않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원함입니다.

바탕화면의 동영상은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앨범의 사진에서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NPC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달빛이 방안으로 들어와 당신을 비춥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 달빛을 즐겨볼까요. 내일은 햇볕 아래로 나가는 것도 좋겠네요.

평소엔 잠들기 싫었던 밤도, 오늘은 왠지 포근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 잠에서 깬 당신은 일어나서 에어컨을 켜고는 물을 한 컵 마십니다. 그때 당신에게 택배가 하나 옵니다.

발신자는 없습니다.

안에는 CD가 한 장 들어있네요.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체에 넣어 확인해 봅니다.

프라이즈 「발신자 없는 택배」를 얻습니다.

CD의 제목은 20XX년 X월 X일

기묘했던 그 날의 동영상과 제목이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눌러봅니다.

잠시의 노이즈가 있었지만, 곧 깨끗한 영상이 나옵니다.

자신과 얼굴에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NPC가 비칩니다.

소리도 제대로 들립니다. NPC의 목소리입니다.

둘은 웃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당신도 저절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지만, 주변이 잠시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NPC를 다시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 생겼습니다.

NPC를 잊어버렸어도 함께했던 기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이렇게 확인하니 눈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뒤에서 “고마워”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지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리운 소리의 주인공은 NPC라는 것을.

당신은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거란 기분이 듭니다.

■ 켄 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방」(1d6)

1	밖에는 매미소리가 들리고 있다. 방 창문에 붙은 것인지 여느때보다 더 크게 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2	집 밖의 초등학교들이 노는 소리가 들린다. 까르르, 하는 옛된 소리.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3	털털털, 갑자기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내일 정비기사를 불러야 하나.
4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다.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어놓은 것일까.
5	순간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목소리는 무척 그리운 느낌이었다. 누구였더라?
6	뒤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있을 리는 없지만 뒤를 돌아보았다. 역시 아무도 없다.

■ 핸드아웃

PC1

당신은 7년째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 일명 히키코모리입니다.

폭폭 찌는 한여름 낮, 당신은 오늘도 에어컨을 켜고는 바로 컴퓨터 본체의 전원을 누릅니다.

당신의 【사명】은 오늘도 이 방에서 나가지 않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밀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인페이지의 핸드아웃을 다 보지 못했을 경우.

〈비밀〉 / 쇼크 : 없음

당신은 7년 전에 소중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7년간 용케 살아있었다고 느낍니다. 누가 이런 악질적인 비디오를 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끝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사명】은 「문을 열고 옥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메인페이지의 핸드아웃을 다 봤을 경우.

〈비밀〉 / 쇼크 : 없음

당신은 7년 전에 소중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를 허물고 나와 다시 빛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NPC를 기억해 낼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분이 듭니다. NPC가 죽은 것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NPC가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도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NPC가 없는 세상이어도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NPC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함께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사라지지 않아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누가 컴퓨터에 넣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세상에 색이 있었던 나날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당신의 【진정한 사명】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영상

어느샌가 바탕화면에 있던 동영상.

20XX년 X월 X일이라는 제목이다. 꼭 봐야 한다고, 자신의 내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비밀〉 / 쇼크 : PC1

두 명의 어려보이는 사람이 비춰지고 있다.

한 사람은 자신, 한 사람은 얼굴 부분이 검정펜으로 낙서한듯 보이지 않는다.

보다보니, 이것은 자신의 기억에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제서야 알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7년전에 죽은 NPC이다.
이런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던가?

에어컨

더운 여름이라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이 방에서 살 수 없다.
항상 당신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중한 에어컨이다.

〈비밀〉 / 쇼크 : 없음
오늘따라 더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어딘가 고장이 났는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내일도 이러면 정비기사를 불러야겠다.

앨범

책장 구석에 있던 앨범.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하다.

〈비밀〉 / 쇼크 : PC1
보이지 않는 NPC의 얼굴을 떠올리기 위해 펼쳐봤다.
웃고 있는 NPC와 당신의 사진이 보인다.
그런데, 이건 NPC의 얼굴이 맞나? 7년간 억지로라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탓인지,
당신은 이게 정말로 NPC인지 기억해낼 수 없다.

현관문

※4사이클 전에 공개해주세요
※4사이클에서는 이 핸드아웃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선언하는 것으로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한 문.

〈비밀〉 / 쇼크 : 없음
영상을 보고 있자니 문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째서일까, 7년간 그렇게도 나가기 싫었던 밖인데.

◎프라이즈 [발신자 없는 택배]

누가 보냈는지 써있지 않은 택배.
안에는 CD가 들어있다.

비밀을 본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 핸드아웃의 〈비밀〉을 볼 수 있다.

〈비밀〉 / 쇼크 : 없음

본체에 CD를 넣어 영상을 확인해보면, 20XX년 X월 X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자연스럽게 손이 가 눌러보면, 그곳에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고 노이즈도 없는 NPC와
자신이 웃고 있는, 잊을 수 없는 그 시절의 추억이 흘러나오고있다.

■에너미

에어컨

※회피판정 없음.

※플롯 1로 고정.

위협도	3	속성	괴이/기물	생명력	10
호기심	정서		특기	《슬픔》, 《기계》, 《영혼》	
어빌리티	【기본공격】 공격 《영혼》 【소환】 공격 《슬픔》 【트릭】 공격 《기계》				

■의식 「당신을 떠올리다」

단계 1	암흑 속 생활에서 빛을 찾는다.
	지정 특기 : 《걱정》, 《미디어》, 《암흑》
단계 2	NPC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슬픔을 인정한다.
	지정특기 : 《슬픔》, 《소리》, 《죽음》
단계 3	NPC와의 기억을 더듬어, 자신 속의 NPC를 인식한다.

지정특기 : 《친애》,《풍경》,《영혼》

※단계 실패의 패널티로 이성치가 -1 감소합니다.

※이성치가 0인 경우, 생명력이 -1 감소합니다.

■후기

편도체 :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것은 일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일단 끝까지 봐주신, 그리고 플레이 해주시는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제가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쓴 짧은 글(트레일러)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 첫 시나리오를 이것을 기반으로 써보자 생각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마스터 씬 쓰기가 힘드네요. 특히나 이런 소재에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다 예전의 일입니다. 최근에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학창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의 일상에서 꽤나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분씩 사라질때마다 정신적인 영향을 받았고 충격을 지금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졸업해야겠죠. 저는 그분들과의 추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목소리와 얼굴은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분들과 제가 나눴던 대화 내용은 기억나는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공허해집니다. 건잡을 수도 없이.

하지만 PC는 그걸 딛고 나아가길 바라면서 썼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PC처럼 나아가야겠지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시나리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PC가 진엔딩에서 가지게 되는 프라이즈도 제가 가지고 싶은 물건입니다.

후기가 쓸데없이 기네요. 아무튼 힐링 목적으로 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 : 시나리오 번역이 아닌 오리지널 시나리오로는 처음 뵙네요. 여기까지 선뜻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도체가 새벽에 쓴 글(트레일러)로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해 전 그저 옆에서 진상에 대한 아이디어(에어컨 괴이)를 더했습니다.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었다면 편도체를 칭찬해주세요.

처음 시작할 시점에는 우울하지만 진행하면서 점차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다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사정으로 인해 연락이 끊기는 일도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빈자리의 공허함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별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상대의 생명이 사라졌더라도
상대의 의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추억들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존재 자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러라고 작성한
시나리오니까요. 심심하다면 오늘은 살아있는 추억을 어딘가에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